

핵심주제

- 2019 동방경제포럼에서 70개 이상의 공식행사 진행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제5회 동방경제포럼 참가자에게 환영사 전달
- 2019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극동 소기업 주제 원탁회의 진행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9년 8월 22일, TASS, Rossiskaya Gazeta, Gazeta.ru, Izvestiya, Lenta.ru, Interfax, RT

극동 중소기업 발전 전망, 2019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전문가 논의

제5회 동방경제포럼 준비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에서 '극동 소기업. 가능성, 조건, 특혜'를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러시아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기금, 극동 인적자원 진흥청 및 'Opora Rossii (러시아의 기반)'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극동연방관구에 3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20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369개의 입주기업들이 총 투자 규모 2조 5000억 루블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 내 95개 프로젝트는 추진이 완료되었고 도합 6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계획되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의 혜택을 받는 입주기업들은 1404개로 투자 총액은 6985억 루블이며 68000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계획되어 있다.

2019년 8월 23일, Interfax

러시아와 일본 스모 국가대표선수단,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대결

러시아와 일본 간 스모 국가대표선수단 대항전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4일 제 5회 동방경제포럼의 체육행사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세계 최고 스모 선수들의 대결은 포럼 기간동안 진행되는 '극동의 거리' 전시회에서 운영되는 러일 스모관 행사의 일부이다.

러일 스모관 행사 일정에 스모 및 투바 지역 전통 무예 후레시 시연이 계획되어 있고 스모 철학 체험, 음악 및 예술 공연이 계획되어 있다.

<http://www.interfax-russia.ru/Moscow/special.asp?sec=1725&id=1058496>

2019년 8월 22일, Izvestiya

2019동방경제포럼 한국 대표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당 정보는 코바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과 이석배 주러 대한민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공개되었다. 양측은 9월 4-6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제 5회 동방경제포럼에서의 한국 사절단 참여와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였다.

<https://iz.ru/912855/2019-08-22/delegatciiu-respubliki-koreia-na-vef-2019-vozglavit-vitce-premer-ekonomike-ministr-planirovaniia>

2019년 8월 22일, TASS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경제발전 촉진 신규정책 검토

극동 지역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가능한 조치 및 정책이 제 5회 동방경제포럼 공식 일정의 일환으로 논의될 주제에 포함된다.

경제촉진관련 안건들은 '국가들의 경제성장 경쟁. 러시아의 계획은?' 세션에서 논의된다. 해당 세션에 러시아 정부 부처, 사업계 관계자들과 극동연방관구 주지사들 및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세션 사회자는 티토프 대통령 직속 사업가권익보호관이다.

세션에서 도출된 해결책들은 향후 '러시아 경제 비자원 분야 지속가능한 발전 로드맵'에 포함될 것이다.

<https://tass.ru/v-strane/6786968>

2019년 8월 21일, Komsomolskaya Pravda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제5회 동방경제포럼 참가자에게 환영사 전달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러시아 극동의 발전, 경제 및 혁신 잠재력, 생활 수준의 향상은 우리의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최우선 과제이며 실로 국가적 과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 사업 지원, 선도개발구역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전례없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 사회, 교육, 체육 인프라 시설들이 건설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같은 특별법 시행구역 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의 사업계 간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포럼이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호혜적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유망 프로젝트들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https://www.kp.ru/daily/27019.4/4081280/>

2019년 8월 20일, RIA News

동방경제포럼 공식 일정으로 70개 이상의 행사 진행

행사들에 페널세션, 비즈니스 조찬, 원탁회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들이 포함된다. 포럼 프로그램은 4개의 주제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 '사업환경조성', '극동과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발전해 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 동방경제포럼 메인 행사는 푸틴 대통령이 참여하는 플래너리 세션이다. 또한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국가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도 계획되어 있으며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 유럽 국가들이 참여한다.

<https://ria.ru/20190820/1557668678.html>

2019년 8월 19일, Lenta.ru

알렉산드르 실레멘코,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대회 참여

제 1회 Roscongress Vladivostok Combat Night MMA 토너먼트가 9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5회 동방경제포럼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메인 경기는 미들급 세계 일류 선수들인 러시아 실레멘코와 미국 해니컷의 대결이다.

<https://lenta.ru/pressrelease/2019/08/19/shlemenko/>

극동 뉴스

2019년 8월 22일, Interfax

연해주 농업바이오클러스터에 187억 루블 투자

연해주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 농업바이오클러스터 투자 규모는 187억 루블이라고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청 공보부가 밝혔다. 프로젝트는 '아르니카'사가 추진한다. 클러스터 소속 2개 산업체는 내년에 가동될 전망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1058177&sec=1679>

2019년 8월 19일, TASS

'골든 마스크' 축제로 극동 극장예술 발전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다

8월 26일 '골든 마스크' 수상자 및 후보자들의 순회공연으로 대대적인 극동 극장예술 발전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프로그램은 2019-2020년 추진된다. 러시아 국민예술가 미로노프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러시아 대통령, 연방 및 지역 정부가 지지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극동의 극장들은 공연 프로그램 재구성 및 청년감독들의 연극 유치를 위한 보조금을 받게된다. 지역 극장들 간 협력 및 예술교류 확대를 위해 2019-2020년에 극동 극장 축제가 진행된다.

<https://tass.ru/kultura/6774308>